

## 자막번역의 문체와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 『7번방의 선물』 주인공 대사를 중심으로\*

이 주 은  
(부산대)

### 1. 서론

문학 작품이든 영상물이든 번역 과정에서 등장인물을 적절히 묘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출발어 텍스트(Source Text, 이하 ST)를 도착어 텍스트(Target Text, 이하 TT)로 번역하면서 언어적 차이와 문화적 간극을 극복해야 하고, 자막 번역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제약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화, 드라마, 소설 등에서 작가는 각 등장인물에게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독특한 개성(particular character voice)을 부여하여 다른 인물과 차별화하는데(Howell 2006: 292), 번역사는 이러한 정체성을 최대한 유사하게 형상화해야 한다. 정체성은 등장인물의 개별 속성과 자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현되며, 개인이 쓰는 어투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Silva & Duarte 2011: 237-238).

\* 이 논문은 BK21 플러스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ST의 어투는 번역 과정에서 번역사에 의해 도착어로 새롭게 구성된다. 이 때 때로는 변이(shift)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Al-Qinai(2009: 38)는 이러한 변이를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번역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의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minimize the inevitable loss of meaning) 번역사가 의식적으로 채택하는 문제 해결 전략(problem solving strategies adopted consciously)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영화와 TV의 자막 번역이 문체상의 변이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고 주장했다(ibid.: 36).

자막 번역은 시·공간적 제약이라는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다른 장르에 비해 등장인물의 성격을 묘사하는 데 추가적인 어려움이 따른다(Howell 2006: 293). 본고에서는 이러한 제약 속에서 ST의 어투를 TT에서 어떤 문체로 번역했는지, 그리고 ST 등장인물의 성격이 TT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신 지체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7번방의 선물(2012)’이라는 영화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했는데, Marchbanks(2006: 3)는 가상 인물의 장애는 작품 속의 성격묘사, 줄거리, 주제 등을 구체화하는 보조역할(crutch or prosthesis)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영화의 자막번역에서 주인공인 이용구의 성격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조명하기 위해 ST의 한국어 대사와 TT의 영어 자막을 대조분석했다. 관객은 대사를 통해 캐릭터의 이름과 직업, 나이, 처한 상황 등의 외적인 정보를 얻고 소심함, 대범함 같은 내면적 특징들도 추측할 수 있기에(유은순 2013: 98), 대사의 적절한 번역은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대사 분석을 위해 나수화(2006)가 정신지체아동 언어의 화용론적 특성을 분석하면서 제시한 대화의 20가지 화용 기능을 근거로 분석 지표를 구성했으며, 본고의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적용했다.

분석 결과에서는 정성적 분석을 통해 자막번역의 문체적 특성과 주인공의 성격 묘사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ST 등장인물의 어투를 TT에서 적절한 문체로 재현하고자 하는 영상번역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대사 분석 결과를 통해 화용 기능에 따른 번역의 문체적 특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 2. 이론적 배경

등장인물의 잘못된 어투 선정은 캐릭터를 잘못 전달하고, 작가의 메시지나 주제를 올바르게 도출시킬 수 없으며, 번역에서 작가의 작품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오류를 낳는다(권오숙 2010: 17). 그러므로 ST 등장인물의 어투를 TT에서 적절한 문체로 재현하여 성격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실제적인 텍스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번역과 문체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문학과 영상의 등장인물 묘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겠다.

### 2.1 번역과 문체

Al-Quinai(2009)에 따르면 문체란 개인이나 집단이 언어를 사용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담화 형식이다. 광고, 자막, 아동문학 번역에서는 ST의 문체가 변이를 나타내기 쉬운데, 이는 ST의 형식적 요소를 보존하는 것보다 ST의 캐릭터와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pp. 23-24). Guo(2013: 109)도 문체를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표현 방식으로 보았으며, 저자의 문체는 선택하는 어휘와 문장 구조에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자마다 자기만의 문체가 있듯이 번역사도 개인적인 문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영상물의 원작에서 작가의 문체에 의해 창조된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번역된 영상물에서는 번역사의 문체를 통해 재창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번역사가 선택하는 문체가 영상물의 번역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Marco(2004: 81) 역시 ST에서 나타나는 문체와는 별도로 번역사와 번역물도 개성 있는 문체를 드러낸다고 역설했다. 본고에서는 번역사 개인의 문체보다는 영상번역이라는 특수성이 주는 기술적 제약으로 ST의 문체가 TT에서 어떤 문체로 변형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등장인물이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ST의 문체가 일반적인 문체에서 벗어나거나(less normal) 덜 선호되는 문체일 경우(less preferred) 언어적 유표성(linguistic markedness)을 나타내게 되는

데, Hatim은 ST의 문체가 유표적인 경우 TT의 문체를 통해 ‘낯설게 하기 효과(alienating effect)’를 전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04: 230, 238). 이렇게 특이하거나 충격적이거나 특정 태도를 반영하는 텍스트 요소를 문체적 장치(stylistic devices)라고 한다(Boase-Beier 2004: 278). 본고에서 분석할 ‘7번방의 선물’은 지적 장애인이 주인공인 영화로, 주인공 이용구의 대사의 문체가 매우 유표적이며 다른 등장인물의 대화와 확연히 구분되어 ST와 TT 간의 문체를 비교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텍스트 대조 분석은 주인공 대사에 국한해서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도 번역의 문체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문학 작품과 관련된 것이다. 가령, 김동미(2009: 23)는 문학작품 속에 나타나는 여성 번역가의 문체 분석을 통해 비격식적인 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강조 부사 또는 반복 부사를 즐겨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김도훈(2014: 86-87)은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을 분석하여 영한 번역에 있어서 형식문체소의 번역을 통한 문체적 효과의 재현과 변이를 논했다. 가령, 단문으로 번역되면서 ST의 연속성이나 교차효과가 TT에서 단절이나 교차효과와 반감으로 이어진다는 점, 홀문장이 접문장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완전한 문장으로 번역되면서 문체의 변이가 발생하는 점이라든지, 각종 문장부호가 TT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원문의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 등이다. 본고에서도 TT의 문체에서 문장부호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 2.2 문체와 등장인물 묘사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는 소속된 사회 및 집단의 맥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지만, 각자가 선택하는 어휘 및 구, 문체 및 어역, 억양 및 언어 외적 요소를 통해 개별 정체성을 드러낸다(Silva & Duarte 2011: 238). 서정묵은 이러한 개인적 문체가 언어적 요인, 개성적 요인, 심리적 요인, 표현적 요인으로 구성되며,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을 통해 특정인의 문체가 결정된다고 설명한다(2011: 143, 146).

희곡 번역과 관련하여 TT에서의 적절한 어투 선정에 대해 연구한 권오숙

(2010: 6)은 등장인물의 어투가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다른 사람들과의 권력관계 등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희곡이 소설처럼 등장인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대사를 통해서만 성격이나 관계가 표현되기 때문에 알맞은 어투의 설정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희곡이 관중을 직접 대면하는 실시간 공연이라면 영화는 관중을 간접적으로 대면하는 녹화된 ‘공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장르 모두 대사를 통해 성격 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단, 영화의 경우 더빙이 아닌 자막 번역이라면 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제한된 시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추가적인 제약이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한편, 번역자가 파악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의 등장인물 간 관계가 번역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연구한 성승은(2012: 170-171)은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담화 참여자 간의 관계가 말단 계로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TT에서는 등장인물의 관계가 더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적 및 문화적 차이로 TT에서 문체적 변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본고에서는 이 외에도 특히 기술적 제약이 최종 번역본에 미친 영향과 TT가 묘사하고 있는 등장인물의 성격이 ST와 달라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2.3 영화 내의 장애인 묘사

대중매체의 메시지가 장애인을 다루는 방식에 관해 학문적인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게 된 것은 장애인의 권익활동이 활발해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Hallahan & Kauffman 1988, 김홍주 & 박원희, 2003: 7에서 재인용). 국내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미디어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가령 황근(2001: 78)은 장애인을 보는 관점으로서의 미디어 프레임을 ‘인간적 한계 프레임(Human Limitation Frame)’과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Human Variation Frame)’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인간적 한계 프레임은 장애를 인간의 존재에 한계를 부여하는 요인으로 간주하며, 장애인을 사회에 의존적이고 일반인보다 열악하며 비정상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반면,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은 장애를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조건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장애인을 정체성을

지닌 동등한 사회의 권리 주체로 평가한다. 이에 대해 김정선(2004: 21)은 장애인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긍정적 묘사와 부정적 묘사를 제시했는데, 긍정적 묘사는 자신을 존중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나 태도를 반영하며, 부정적 묘사는 열등의식, 비교의식, 피해의식으로 인해 자신을 학대, 방치, 거부하는 자세나 태도를 나타낸다.

영화에 등장하는 장애인은 다양한 이미지로 그려지는데, 김정선은 한국 영화가 미국 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부정적인 자아의식을 더 많이 나타냈다고 지적했다(2004: 34). 그러나 이선자는 한국 영화에서 스스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장애인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2007: 92). 이후 한국 영화에 나타난 장애인의 스테레오타입을 연구한 강주현과 임영호는 한국 영화에서 장애인은 연약하거나 의존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가진 개성 있고 독립적이며 강인한 캐릭터로 그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2011: 23). 그들은 한국 영화의 장애인 이미지는 교활하지 않고, 순수하며, 폭력적이지 않고, 바보스럽지도 않다고 설명한다.

소설을 비롯한 문학 작품에서도 지적 장애인은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한다. 예를 들어, Puccinelli(1990)는 등장인물로서의 지적 장애인을 다섯 유형으로 분류했다. 즉, 다른 인물을 평가하는 척도(yardstick), 바보 행세를 하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wise fool), 사건전개를 이끌어가는 촉매제(catalyst), 선입견이 없는 맑은 시각을 보여주는 인물(window pane), 그리고 이야기의 깊이를 더하고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한 보조적 인물(accessory)이다. 그는 이런 모습이 영화와 TV와 같은 비문학 매체에서도 동일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King(1975) 역시 다섯 유형을 제시했는데, 피해자인 희생양(scapegoat), 다른 인물의 인격을 고취시키는 시금석(touchstone character), 바보 행세를 하는 사람(wise fool), 독창적인 관점을 피력하는 순결한 시각(innocent eye), 그리고 평범한 인간의 과오를 과장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패러디(parody)가 그것이다. 그는 지적 능력에 따라 가상 인물로서의 지적 장애인을 다시 네 단계로 나누었는데, 가장 낮은 단계는 생활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2-3세의 정신 연령층, 상위 단계는 6세의 정신 연령층, 그 위의 단계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교육이 가능한 대상, 그리고 최상위 단계는 아주 복잡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춘 대상이다.

본고에서 분석할 ‘7번방의 선물’ 주인공인 이용구는 위에서 제시한 프레임 중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의 관점에서 그려지는 인물이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즉, 장애와 무관하게 동등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평등한 존재로서 그의 순수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들로부터 동조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 그는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6살 지능의 아버지로 나오는데 때로는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순화하는 시금석 역할을 맡기도 하며 언제나 진실되고 맑은 영혼의 소유자로 비춰진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이용구의 성격이 TT의 자막을 통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적용된 분석 방법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 3. 분석 텍스트 및 분석 방법

본고의 분석 대상 영화는 ‘7번방의 선물(Miracle in Cell No.7, 2012)’이며 분석 대상 텍스트는 지적 장애인인 이용구의 ST 한국어 대사와 그에 대한 TT 영어 자막이다. 이 영화는 ‘개봉 나흘 만에 100만’, ‘12일째 400만 돌파’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을 만큼 개봉과 동시에 흥행에 성공하여 휴먼 코미디 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최단 기에 동원한 성과를 올렸다<sup>1)</sup>. 또한 최종 공식 집계된 관객 수가 1000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한국 영화의 대명사가 되었다.

억울하게 투옥된 아빠를 만나기 위해 딸이 일으키는 소동과 7번방 죄수들 사이에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사건들, 그리고 딸을 위해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용구의 애뜻한 사랑을 코미디 형식으로 풀어낸 휴먼 드라마이다.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혹평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의 호응을 얻은 작품이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된 버전이 상영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영화에서는 이용구의 지적 장애가 중요한 설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독특한 어투를 구사해 개성있는 성격을 드러낸다. 이용구가 6살 지능의 장애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과 영화에서 현실감을 주기 위해 주연 배우가 실제로 지적 장애인을 연기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나수화(2006)가 정신지체아동

1) 이투데이 기사(2013.2.4.), ‘7번방의 선물’ 400만 돌파... 휴먼 코미디 사상 최단 기록

이 구사하는 언어의 화용론적 특성을 분석하면서 제시한 20개의 화용 기능을 분석틀로 적용했다. 나수화는 특수학교 초등부 학생 중에서 비언어적,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신지체아동 10명을 대상으로 2005년 7월부터 9월까지 발화 수집을 했다. 발화 유형 분석 결과 빈도가 높게 나타난 순서는 대답하기, 모방하기, 혼잣말, 행동요구하기, 정보요구하기, 자기생각 진술하기, 부정 및 감정 표현하기, 명료화 요구하기, 인사하기, 설명, 부르기 및 농담하기, 반복 및 강조하기, 기타(무응답), 주의집중 요구, 의도·의지 표출 및 경고하기, 사건 사물 진술하기, 놀리기이다(2006: 20).

본고에서는 위의 화용 기능 20개를 근거로 이용구의 ST 대사 382개를 총 3차에 걸쳐 분석했다. ST 대사는 TT 자막과 짝을 이루는 것을 한 단위로 간주하되, ST에 대응하는 TT가 없는 경우에도 ST를 한 단위로 계수했다. 1차 분석에서는 ST 대사를 발화 유형별로 범주화하면서 빈도 분포를 파악했다. 2차 분석에서는 1차 분석 때 모호한 기준 때문에 분류가 중복되거나 분류가 잘못된 대사를 찾아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중복 분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가령, 반복하기와 모방하기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는 화자가 자신의 말을 반복한 경우로, 후자는 화자가 상대방의 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대로 또는 유사하게 따라한 경우로 국한했다. 설명과 자기 생각 진술의 구분은 전자의 경우 객관적 정보에 대한 언급을 기준으로, 후자는 주관적 의견이나 주장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그 외에 사과하기나 감사하기는 감정 표현에 포함시켰고, 맞장구는 대답하기로 분류했다. 3차 분석에서는 대사를 장면별로 구분하여 ST의 발화 유형을 최종 검토했다. 최종 분석 결과 전체 대사에서 빈도가 5% 이상으로 집계된 발화 유형 8개를 대상으로 한 정성적 분석 결과를 다음 장에서 논하겠다.

#### 4. 텍스트 분석 및 논의

앞서 언급한 나수화(2006: 15-16)의 화용 기능<sup>2)</sup> 20개를 기준으로 이용구 대

2) 본고에서는 나수화(2006)의 ‘화용 기능’이라는 명칭 대신 ‘발화 유형’이라는 명칭으로

사 382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이응구 ST 대사의 발화 유형별 빈도 분포

번호	발화 유형	설 명	대사	백분율
1	반복하기	화자가 자신의 발화 반복(동일 장면만 해당)	78	20
2	대답하기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대답(맞장구 포함)	50	13
3	사건 사물 진술	사건, 사물에 대한 진술	47	12
4	모방하기	상대방이 한 발화를 모방한 말	30	8
5	설명하기	설명을 하거나 정보를 주는 말(객관적)	26	7
6	자기 생각 진술	화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한 말(주관적)	24	6
7	행동요구	상대방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말	24	6
8	인사하기	만나거나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20	5
9	혼잣말	독백 형식으로 혼자 하는 말	16	4
10	감정 표현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사과, 감사 포함)	14	4
11	부르기	상대방을 부르거나 주의를 끌기 위한 말	12	3
12	정보요구	예/아니오 반응 요구, 의문사를 이용한 질문	12	3
13	의도 및 의지	화자의 의도나 의지를 표명하는 말	11	3
14	부정하기	상대의 발화에 대한 부정적인 말	7	2
15	경고하기	문제를 지적하거나 위험을 알리는 말	6	2
16	강조하기	화자의 발화를 강조하는 말	3	1
17	놀리기	흥을 보거나 놀리는 말	2	1
18	농담하기	남을 웃기려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0	0
19	명료화 요구	명료화를 위해 상대에게 확인하는 말	0	0
20	주의집중 요구	상대의 주의를 집중시키려는 말	0	0
총계			382	100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대사에서 5% 이상의 비중을 보인 발화 유형은 8개로 반복, 대답하기, 사건 사물 진술, 모방하기, 설명, 자기 생각 진술, 행동요구와 인사하기이다. 빈도로 보면, 반복이 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대답하기와 사건 사물 진술하기가 높게 나왔다. 나수화가 분석한 결과에서 빈도가 5% 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대답하기, 모방하기, 혼잣말, 행동요구하기, 정보요구로, 위 표에서 빈도 5% 이상인 발화 유형과 일치하는 것은 대답하기, 모방하기, 행동요구이다. 강주현과 임영호(2011: 26-27)는 영화 속의 장애인은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위압하거나 주도권을 잡기보다 소극적으로 대체한다.

대응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는데, 위의 분석 결과가 이러한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8개의 발화 유형에 대한 텍스트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다.

#### 4.1 ‘반복하기’에 대한 TT 자막 분석

이용구 대사의 분석 결과 ‘반복하기’에 대한 빈도가 78건으로 20%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왔다. 반복은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반복하는 것으로, 동일한 장면 내에서의 반복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즉, 다른 장면에서 화자의 이전 발화가 반복되었다 해도 그 장면에서는 새로운 발화로 간주해 ‘반복하기’로 보지 않았다. 반복하기에 대한 비중이 큰 이유는 다른 발화 유형(부르기, 인사하기, 감정 표현, 대답하기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도 특정 대사가 화자의 말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반복하기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다. 즉, 본고에서는 한 대사가 여러 발화 유형으로 분류될 경우 대표적인 유형 하나를 선택했는데, 같은 장면 내에서 동일 어구를 반복했을 때는 ‘반복하기’로 분류했다. 아래에서 반복하기에 대한 예를 살펴보자<sup>3)</sup>.

ST 이용구 대사	TT 영어 자막
<p><b>이거 예송이 거예요</b>                      -당신 뭐야?&lt;br&gt;<b>이거 예송이 거예요</b>                      아저씨!&lt;br&gt;우리 아빠 왜 때려요?                      미친 거야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lt;br&gt;<b>이거 예송이 거예요</b></p>	<p><b>This is Yesung's!</b>                      -Who are you?&lt;br&gt;<b>This is Yesung's!</b>                      Don't hit my daddy!                      -Are you crazy?&lt;br&gt;<b>This is Yesung's!</b></p>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ST에 나타난 이용구의 어투가 TT의 자막 문체에

3) ST와 TT 대조표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 이용구의 대사이고 밑줄 친 부분이 해당 발화 유형에 대한 대사이다. 맥락을 보기 위해 다른 등장인물의 대사를 함께 적었다. 표에서 <br>은 break의 약자로서 화면 하단에 자막이 두 줄로 나타날 때 줄이 바뀌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이며, 대사 앞에 줄표(-)는 두 인물이 대화할 때 구분하기 위해 표시한 것이다. 한 자막에 이용구의 대사가 두 개 이상 들어가고 그 대사들의 발화 유형이 다를 경우, 각 대사를 별개의 발화 유형으로 분류했다.

반영되고 있다. 즉, 한정된 어휘로 동일한 어구를 반복하면서 소통하고 있는 6살 지능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번역사는 이러한 캐릭터를 전달하기 위해 영어자막으로 번역할 때 변화(variation) 없이 동일한 문구(This is Yesung's!)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래 예는 ST의 반복이 자막 번역에서의 시·공간적 제약으로 TT에서 변이가 일어난 경우이다.

ST 이용구 대사	TT 영어 자막
우리 예승이 우리 예승이 도와주세요 -정숙하세요 -우리 예승이 -정숙하시라니까요! -내가 그랬어요, 예승 이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y Yesung. My daughter. -Order! -I did it.

위 대조표에서는 반복하기에 해당하는 ST의 ‘우리 예승이’가 TT에서 모두 생략되었다. 이는 화면의 빠른 전환을 감안할 때 많은 자막을 제시하면 영상을 감상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정보성이 낮은 반복적인 문구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문학과 달리 영상 번역은 화면 전환과 자막을 읽는 속도에 대한 시간적 압박과 제한된 공간에 자막을 배치해야 하는 제약 때문에 이런 생략과 축소가 불가피하다. 다만, TT에서 생략이 이루어짐으로써 ST에서 딸에 대한 부정애를 각인시키는 호소력 있는 외침에 대한 효과가 반감되고 이용구의 캐릭터가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다양한 기호가 영상을 구성하고 자막 텍스트를 보완하기 때문에(Chuang 2006: 372), 영상의 시각적 및 청각적 정보를 통해 축소된 자막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윤철(2007: 125)은 영화의 이미지, 배우의 음조와 몸짓, 배경화면 등의 영향으로 ST의 의미나 문체가 TT에서 변경, 생략, 삭제, 압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4.2 ‘대답하기’에 대한 TT 자막 분석

‘대답하기’는 이용구 대사 중 50건에 해당하고 13%를 차지한다. 여기서 대답하기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답을 하는 경우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용구는 대화 상황에서 먼저 질문을 하거나 요구를 하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대체로 상대의 요구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구의 대사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를 ‘대답하기’에 포함시켰다. 대답하기도 반복하기와 마찬가지로 한 대사가 여러 발화 유형(설명하기, 반복하기 등)을 나타낼 때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대답이라면 이를 우선 순위에 두었다. 단, 부정적인 대답을 할 경우에는 대답하기가 아닌 ‘부정하기’로 분류했다.

ST 이용구 대사	TT 영어 자막
당신 딸 있대매, 예승이라고? <b>예, 이예승&lt;br&gt;이용구 딸 이예승, 예빠요</b> -당신 내 말 잘 들어 -예 그 애 아빠가 청장이라고 경찰청장 <b>예</b> 아 증말... 경찰 알지? 경찰! <b>예, 경찰&lt;br&gt;무서워요, 경찰</b>	You have a daughter. Yesung? <b>Yes. Yesung is pretty.</b> -Listen to me carefully. -Yes. The girl's father is the police commissioner. <b>Yes.</b> Damn... You know! The police! <b>Yes, police. Very scary.</b>

위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구는 대체로 ‘예, 아니오’의 단답형으로 반응하며, 상대방의 질문에 있는 어휘(딸, 경찰)를 모방하여 답변을 하기도 한다. 단답형의 대답은 TT에서 재현되었으나, ST 대답의 일부(이용구 딸)가 TT에서 생략되기도 했는데, ST의 단순한 반복일 경우 정보성이 낮은 말은 중복하지 않아 TT의 대사가 간결하고 요점만 전달하는 형태이다. ST와 TT의 대사만 비교했을 때 이용구의 어눌한 성향이 반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현상은 영상 번역에서 기술적 제약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며, 그러한 손실은 영상의 복합 모드로 어느 정도 보완된다.

#### 4.3 ‘사건 사물 진술’에 대한 TT 자막 분석

‘사건 사물 진술’은 전체 대사에서 47건으로 나타났으며, 12%의 비중을 보여, 대답하기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사건 사물 진술은 말 그대로 사건이나 사물을 진술하는 발화 유형으로 법정에서 하는 진술, 개인의 과거 사실에 대한 진술, 그리고 공식적인 지시사항에 대한 진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래 예를

보자.

ST 이용구 대사	TT 영어 자막
1961년 1월 18일 태어났어요 경기도 이천 제왕절개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 커서! (중략) 아빠 없었고 정민삼촌, 성룡삼촌 -에 상태 왜 이래, 이거? 민경이모, 수진누나... -야! -예? 너 뭐하다 왔냐? 주차하다 왔어요 해피해피 해피마트 파크킹 파킹했어요	Born on January 18th, 1961. In Icheon. By C-section. Mom hurt cuz my head was big! (중략) Dad wasn't there. -Only my uncles... -What's with him? and aunties... -Hey! -Yes? What did you do? I parked. At Happy, Happy Mart. Parking... parking cars.

이것은 이용구가 7번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다. TT 자막에서 문체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캐릭터 묘사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경기도 이천’이나 ‘제왕절개’와 같이 명사구를 단순 나열한 ST와 달리 TT에서는 ‘In Icheon’과 ‘By C-section’으로 번역함으로써 전치사가 추가된 어구로 대체되어 ST와 TT간에 차이가 보인다. 원문과 마찬가지로 TT에서 Icheon이나 C-section으로 단순히 명사만 언급할 수도 있으나 관객의 가독성을 위해 영어식으로 이해가 더 용이한 전치사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번역사는 이러한 문체상의 차이가 캐릭터 묘사에 줄 수 있는 영향을 인지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로, ST에서 ‘정민삼촌, 성룡삼촌, 민경이모, 수진누나’ 등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한 대목에서는 이용구가 비록 지적 장애인이지만 중요한 사건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인데, TT에서는 상위어인 uncles, aunties 등으로 번역되어 ST에서의 캐릭터 묘사와 달라졌다.

ST의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 커서!’는 TT에서 ‘Mom hurt cuz my head was big!’로 번역되었는데, ST에서 ‘엄마’ 다음에 생략된 조사가 TT에서는 ‘Mom’ 다음에 be 동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영어 자막에서 ‘because’ 대신 ‘cuz’라는 어휘를 선택함으로써 비격식적인 문체를 통해 이용구

의 어투가 효과적으로 재현되었다. Howell(2006: 297)도 wanna, watcha 등과 같은 비격식 문체를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묘사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제시했다. 사건 사물 진술에 해당하는 또 다른 예를 보자.

ST 이용구 대사	TT 영어 자막
<b>홍부압박상지거상법을...</b> 아이 용구야! <b>예</b> 아침에 해, 아침에 <b>예</b> <b>존경하는 재판장님</b> <b>나는...저는 지적 장애인입니다</b>	<b>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b> Yong-gu! <b>Yes?</b> Do it in the morning. <b>Yes.</b> <b>Your Honor...</b> <b>I am intellectually impaired.</b>

위 예시는 재판에 대비해 이용구가 법정에서의 답변을 연습하는 장면이다. 억울한 누명을 풀고 다시 딸의 곁으로 가기 위해 밤새워 법정 답변을 암기하는 모습에서는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성실성을 엿볼 수 있다. 위 대사를 통해 이용구가 비록 지적 장애인으로 등장하지만 전문용어나 법정의 공식적인 말을 구사할 만한 지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T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과 ‘your honor’ 등의 전문용어와 공식적인 표현으로 적절하게 번역했다. 전체적으로 느린 말투와 말을 더듬는 특성은 TT에서 Your Honor 다음에 표기된 말줄임표와 같은 형식문체소에서 드러난다.

#### 4.4 ‘모방하기’에 대한 TT 자막 분석

‘모방하기’는 전체 대사에서 30건으로 8%에 해당된다. 모방하기란 상대방이 한 말을 모방하여, 특정 어휘를 그대로 따라하거나 비슷한 발화를 하는 것으로 지적 장애인의 어휘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인공의 캐릭터를 나타내줄 수 있는 장치이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ST 이용구 대사	TT 영어 자막
아저씨! 저 숨박꼭질 잘해요 -형님!  <u>잘 숨어요, 꼭꼭 숨어요</u> (중략) 왜 여기 있어? 아빠, 나쁜 사람 아니잖아 <u>응! 아빠 나쁜 사람 아니야</u> (중략)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야지 애를 뭐 나처럼 만들래? 재처럼, 응? 재처럼? 너처럼? 이 등신아! <u>예승이 학교...&lt;br&gt;학교 가야 돼, 예승이</u>	Mister! I'm good at hiding! -Sir! - <u>She can hide good!</u> (중략) Why're you here? You're not a bad man. <u>Daddy is not a bad man.</u> (중략) So, she should go to school! Want her to become like me? Or him! Or him? Or you? Stupid! <u>Yesung must go to school.</u>

위 대사는 이용구의 딸인 예승이가 이용구가 있는 감옥에 몰래 잠입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의 대화이다. 예승이가 숨박꼭질을 잘 한다는 말에 이용구는 ‘잘 숨어요, 꼭꼭 숨어요’라며 모방을 한다. 이 대사는 TT에서 ‘She can hide good!’로 번역되었는데 ST의 반복적인 요소가 누락되어 문체상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캐릭터의 어눌함이 반감되었다. 자막번역에서는 이렇게 반복적인 요소를 그대로 재현하기에는 기술적 제약이 너무 클 때가 있다.

예승이가 아빠가 감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빠, 나쁜 사람 아니잖아”라고 한 말에 대해 이용구는 예승이가 쓴 표현을 빌려 “나쁜 사람 아니야”라고 모방한다. 또, 감옥 방장이 예승이를 내보내기 위해 “학교를 보내야지”라고 한 말에 대해 이용구는 “학교 가야 돼”라고 모방한다. 지적 장애인의 어투를 표현하기 위해 이용구의 대사는 앞 사람의 대화에서 언급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TT에서도 “You’re not a bad man”에 대해 이용구가 “bad man”으로 대답하고, “she should go to school”에 대해 “must go to school”이라고 반응함으로써 모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 4.5 ‘설명하기’에 대한 TT 자막 분석

‘설명하기’는 전체 대사에서 26건으로 7%를 차지한다. 설명하기는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 위주의 정보를 전달하는 발화이다. 아래 예에서는 이용구 특유의 어휘 반복과 도치 구문이 두드러진다.

ST 이용구 대사	TT 영어 자막
<b>비 많이 와요&lt;br&gt;예승이 감기 걸려요 감기</b> -감기? -예 그 주둥아리에서 감기란 말이 나와? <b>예승이 우산 없어요, 우산</b>	<b>It's raining a lot!&lt;br&gt;Yesung will catch a cold!</b> -A cold? -Yes. How can you say that? <b>Yesung doesn't have an umbrella!</b>

ST의 감기, 우산 등의 반복은 TT에서 모두 삭제되고, 간결하고 완성된 문장으로 대체되었다. 이 역시 시공간적 제약의 영향으로 선택된 문체인데, 이용구의 어투에서 느껴지는 어눌함이 사라짐으로써 캐릭터의 특성이 주는 효과가 반감되었다. 위 대사 외에도 ‘예승이 기다려요 혼자서’, ‘전기세 은행 가서 내요 혼자서’ 등의 도치가 나타나는 대목이 있는데 이 경우 각각 ‘Yesung is waiting alone’, ‘She pays bills herself’으로 번역되어 ST와의 문체가 달라졌다. 번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Al-Qinai(2009:33)는 Aziz를 인용하여 비격식체의 문체가 번역문에서는 사라지거나 더 ‘표준화된(standard)’ 등가어로 대체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4.6 ‘자기 생각 진술’에 대한 TT 자막 분석

‘자기 생각 진술’은 전체 대사에서 24건으로 6%를 차지한다. 자기 생각 진술은 화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주관적으로 표현한 발화 유형으로, 이용구의 대사에서 짧고 쉬운 어휘의 사용으로 캐릭터를 드러내는 문체적 특징이 나타난다. 아래 예를 보자.

ST 이용구 대사	TT 영어 자막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예승이 담임선생님 입니다 <b>예뻐요</b> <b>예승이도 예쁘고</b> <b>선생님도 예쁘고, 예뻐요</b> 별일은 아니구요 그냥... 학부모상담이에요 <b>똑똑해요, 예승이!</b>	Nice to meet you. I'm Yesung's teacher.  <b>So pretty.</b> <b>Yesung is pretty, too.</b> <b>Teacher is pretty, too.</b> Nothing's wrong. It's just a parent consultation. <b>Yesung is smart!</b>

위 장면은 예승이의 담임 선생님이 예승이의 부탁으로 감옥에 있는 이용구를 찾아오는 장면이다. 이용구는 ‘예뻐요, 똑똑해요’라는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이를 TT로 번역할 때 쉽고 짧은 어휘인 ‘pretty, smart’으로 적절히 대체되었다. 이를 beautiful이나 intelligent등으로 번역해도 의미는 유사하나 자막 길이라는 기술적인 제약과 이용구의 단순한 캐릭터를 감안할 때 위의 선택이 적절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과자 맛있어요’를 ‘Cookies are tasty’로, ‘무서워요, 경찰’을 ‘Very scary’로 번역한 경우도 delicious나 intimidating과 같은 동의어보다 더 짧고 쉬운 어휘를 선택함으로써 이용구의 어투를 살린 점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4.7 ‘행동요구’에 대한 TT 자막 분석

‘행동요구’도 ‘자기 생각 진술’과 마찬가지로 전체 대사에서 24건으로 6%를 차지한다. 행동요구는 상대방에게 특정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발화인데, 이용구의 성격상 강압적인 요구보다는 애정에 기반한 부드러운 요구로 전달된다. 아래 예를 보자.

ST 이용구 대사	TT 영어 자막
집에 가 있어 좁 이따 봐 집에 가야 돼 (중략)	<u>Stay at home!</u> <u>See you soon!</u> (중략)
예승이 콩 먹어야 돼, 콩 비타민 비타민 먹어야 돼, 입 벌려! 벌려 (중략)	<u>Yesung must eat beans.&lt;br&gt;Lots of vitamins.</u> <u>You have to!&lt;br&gt;Open wide!</u> (중략)
-콩 먹어, 비타민, 예승아 -아빠도 밥 많이 먹어	<u>-Eat beans! Vitamin!</u>  You too, Daddy!

위 대화에서 이용구가 딸인 예승이에게 ‘집에 가야 돼’, ‘콩’, ‘비타민’, ‘벌려’ 등의 말을 반복하면서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강요보다는 애정어린 부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를 TT에서 직설적인 문체로 바꾸면 이용구의 캐릭터가 다르게 그려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시·공간적 제약으로 어쩔 수 없이 대안을 찾아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 TT 번역은 최선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영상을 통해 전달되는 이용구의 느리고 부드러운 말투, 표정, 시선 등이 축약된

TT 자막에서 느껴지는 단정적인 어투를 상쇄해 이용구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크게 왜곡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대화에서 마지막 대사인 ‘콩 먹어, 비타민’도 명령문 형식을 띠고 있지만 호칭어인 ‘예승이’를 함께 씌으로써 부드러운 권유가 되었다. TT에서는 이를 Eat beans! Vitamin!으로 번역해 ST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어조가 되었다. 즉, 자막의 기술적 제약으로 호칭어는 생략되고 느낌표와 같은 형식문체소를 써서 문체적 변이가 일어나 ST보다는 강한 권고로 전달된다.

#### 4.8 ‘인사하기’에 대한 TT 자막 분석

‘인사하기’는 전체 대사에서 20건으로 5%를 차지한다. 인사하기는 만나거나 헤어질 때 인사말을 주고받는 발화 유형이다. 아래 예를 보자.

ST 이용구 대사	TT 영어 자막
<b>안녕하세요</b> 사진 안 내려놔? <b>과자 맛있어요, 과자</b> 나와 당신 좋으라고 예승이 데려온 거 아니야 나가 나가 <b>예</b> <b>안녕히 계세요</b>	<b>Hello, sir.</b> Put that down. <b>Cookies are tasty.</b> Get out. I didn't bring Yesung for you. Leave. Leave! <b>Yes.</b> <b>Take care, sir.</b>

위 장면은 이용구가 경찰 과장을 대면하는 상황인데, 이용구의 공손한 캐릭터가 그의 인사에서 드러난다. 이용구와 과장은 권력 거리가 크기 때문에 TT에서 ‘sir’을 추가함으로써 공손성을 더욱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영화 전반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대사는 누락없이 TT에서 재현되어 이용구의 예의바른 성품을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성격 묘사와 관련된 대사는 가급적 생략하지 않고 TT에서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으로 8개의 발화 유형에 대한 이용구 대사의 ST와 TT 문체 비교를 통해 캐릭터 묘사의 차이를 조명하였다. Llamas(2010:9, Silva & Duarte 2011:

238에서 재인용)는 언어의 잠재력이 단순한 소통의 목적을 넘어 화자의 배경, 출신, 교육 정도, 신뢰 정도, 갈망 등의 표출을 가능케 하며, 특히, 개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7번방의 선물’의 이용구 대사를 통해서도 화자의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자막번역에서는 시·공간적 제약 때문에 문체에 변이가 일어나 ST의 캐릭터가 TT에서 다르게 묘사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막의 한계가 영상의 다양한 복합모드 즉, 화자의 억양, 고저, 장단, 강약 등의 청각적 정보와 화자의 표정, 제스처, 대화 상대의 반응이나 표정 등의 시각적 정보를 통해 어느 정도 보완되어 원작의 분위기가 TT 수용자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에 TT에서 일부 변이가 일어났다고 해서 캐릭터가 심각한 수준으로 왜곡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 5. 결론

본고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문학 번역의 문체와 캐릭터 묘사 위주의 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자막 번역의 문체와 이를 통한 캐릭터 묘사를 분석한 결과를 논하였다. 지적 장애인인 이용구의 대사는 나수화가 제시한 20가지 발화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5% 이상의 빈도를 보인 경우를 중심으로 ST와 TT의 문체를 대조분석했다. 그 결과, ST의 어휘를 TT의 문체에 반영하여 유사한 캐릭터로 묘사한 경우와 자막 번역의 기술적 제약으로 TT에 문체적 변이가 일어나 캐릭터 묘사가 달라진 경우로 구분된다.

가령, ‘모방하기’와 ‘자기 생각 진술’에서는 ST의 단순한 어휘를 TT에서 재현함으로써 주인공의 캐릭터를 유사하게 묘사했다. 반면, ‘대답하기’와 ‘설명하기’에서는 번역과정에서 일부 어휘 생략이 이루어져 이용구의 어눌함이 반감되었고, ‘행동요구’에서는 TT에 형식문체소가 추가되어 문체적 변이가 일어났으며, ‘인사하기’에서는 ‘sir’이라는 어휘를 TT에 추가하여 격식성이 강화되었다. 그 외에 ‘반복하기’와 ‘사건 사물 진술’에서는 TT에서 문체를 그대로 재현한 사례와 문체적 변이가 일어난 사례가 혼재한다. ‘반복하기’에서는 ST의 반복적인 발화가 TT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정보성이 낮은 어휘에 대해서는 생략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사건 사물 진술’에서는 ST의 전문용어나 법정표현

이 TT에서 그대로 재현되기도 하지만, 전치사 추가, 비격식체 문체 사용, 생략 등의 문체적 변이가 일어나기도 해 캐릭터 묘사에 차이가 보인다.

자막 번역에서 ST의 어투를 최대한 유사하게 형상화하고 그를 통해 ST의 캐릭터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번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등장인물의 캐릭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적절한 어투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공간적 제약을 감안한 최상의 선택을 하되, 사용 가능한 다양한 문체와 형식문체소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영상물을 구성하는 여러 모드를 고려하여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번역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 영화와 한 인물의 특정 캐릭터에 국한해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를 폭넓게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한 대사가 여러 발화 유형으로 구분될 때 대표적인 유형 하나로 한정해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도 한계라 할 수 있다. 일부 대사는 분류가 모호한 것도 있었으나 3차 분석 과정을 통해 이러한 점을 보완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발화 유형에 따른 번역 문체와 그를 통한 캐릭터 묘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추후 다양한 장르의 영상물을 대상으로 자막번역의 문체와 그에 따른 캐릭터 묘사 방식의 상관관계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강주현 · 임영호 (2011) 「한국 영화에 나타난 장애인의 스테레오타입」, 『언론학 연구』 15(2): 5-40.
- 권오숙 (2010) 「희곡 번역 시 알맞은 어투 선정의 중요성」, 『통역과 번역』 12(1): 3-20.
- 김도훈 (2014) 「형식문체소의 번역 -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21』 27(1): 69-91.
- 김동미 (2009) 「문학작품 속에 나타나는 ‘여성 번역가’ 문체 연구」, 『번역학연구』 10(1): 7-32.
- 김정선 (2004) 「영화에 나타난 장애인 등장인물에 대한 인식 연구」, 고신대 석

사학위논문.

- 김홍주·박원희 (2003) 「한국영화에 나타난 장애인 이미지에 관한 연구」, 『특수 교육연구 아동연구』 12: 1-27.
- 나수화 (2006) 「정신지체아동 언어의 화용론적 특성 분석」,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 박윤철 (2007) 「영화자막에서 시각기호에 의한 축소번역: 영상번역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1): 125-149.
- 서정목 (2011) 「번역전이에 대한 문체의 비교방법론에 관한 연구」, 『언어과학 연구』 57: 141-74.
- 성승은 (2012) 「번역자가 파악한 등장캐릭터 간의 관계가 번역서에 반영되는 양상 고찰」, 『국제어문』 54: 141-77.
- 유은순 (2013) 「영화 대사의 정량적 분석을 통한 등장인물의 감정과 서사간의 상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6): 95-107.
- 이선자 (2007) 「영화 속의 장애인 이미지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7: 77-111.
- 황근 (2001)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대상 방송에 대한 평가」, 『장애인 대상 방송 TV 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71-90.
- Al-Qinai, J. (2009) 'Style shift in translation',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13(2): 23-41.
- Boase-Beier, J. (2004) 'Saying what someone else meant: style, relevance and trans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4(2): 276-87.
- Chuang, Y. (2006) 'Studying subtitle translation from a multi-modal approach', *Babel* 52(4): 372-83.
- Guo, M. (2013) 'A comparative study on translators' styles in literary translation',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7(3): 109-12.
- Hatim, B. (2004) 'The translation of style: linguistic markedness and textual evaluativeness',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3): 229-46.
- Howell, P. (2006) 'Character voice in anime subtitles',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14(4): 292-305.
- King, F. (1975) 'Treatment of the mentally retarded character in modern American fiction', *Bulletin of Bibliography* 32(3): 106-14.

- Marchbanks, P. (2006) 'From caricature to character: the intellectually disabled in Dickens's novels', *Dickens Quarterly* 23(1): 3-13.
- Marco, J. (2004) 'Translating style and styles of translating: Henry James and Edgar Allan Poe in Catalan', *Language and Literature* 13(1): 73-90.
- Puccinelli, P. A. M. (1990) 'The mentally retarded character as a conventional device in ficti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1(8): 2756-A.
- Silva, I. F. & Duarte, J. R. (2011) 'Compliments in audiovisual translation - issues in character identity', *Revista e-escrita: Revista do Curso de Letras da UNLABEU* 2(6): 236-48.

영화 자료

『7번방의 선물』 2013. DVD. 서울: 케이디미디어.

[Abstract]

### Subtitle Style and Characterization

Lee, Jun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how shifts in subtitle style affects characterization in audiovisual translation (AVT). The discussion is based on the comparison of the Korean dialogue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character Lee Yong-gu, the protagonist of ‘Miracle in Cell No. 7’, and its English subtitles. The dialogue is categorized into 20 speech functions proposed by Na Su-Hwa(2006) and the analysis focuses on the ones that show a frequency of 5% or higher. The results show that the style shifts of translated subtitles caused by technical constraints can modify the characterization of the main figure to a certain extent. However, the multimodal features of the movie complement the discrepancy delimiting radical distortion of the protagonist’s image.

Concluding the research, it is emphasized that the translator must understand the unique style of speech portrayed by each character and aim at representing a similar image in the target text by adopting appropriate styles including form style markers, whil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temporal and spacial constraints of AVT.

▶ Key Words: characterization, audiovisual translation, subtitle, translation style, intellectually disabled character

이주은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BK21 플러스 계약교수

junelectrans@gmail.com

관심분야: SFG, 영상번역, 문학번역, 종교텍스트 통번역

논문투고일: 2015년 1월 30일

심사완료일: 2015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 2015년 3월 9일